

IOC 위원장 “‘올림픽 휴전’ 바라지만 정치적 중립 지켜야”

언론 인터뷰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달라 참가 제재 안해” 가자지구 공습한 이스라엘 선수단 제재 가능성엔 선 그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의 전쟁이 멈추길 바란다면서도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흐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 휴전을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말했다.

그는 “올림픽 스포츠는 전쟁이나 평화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100만 번도 더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치 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의 말대로 올림픽 현장은 인류 평화 유지와 인류에 공헌이란 목적에 맞게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11월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참가 배제에 대해선 “보이콧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올림픽 현장을 위한 사람에 대한 제재에 비타협적이지만 현장을 위반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비타협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는 자국 정부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그런 정부의 행동을 지지한다면 제재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이와 동등한 권리를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하마드 지역에서 난민들이 폐허가 된 거리에 앉아 있다. 이슬람 금식성 월인 라마단 기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IOC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 조력국인 벨라루스

선수의 경우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들 두 나라 선수의

올림픽 개막식 참가 여부를 “19일과 20일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선수도 중립 자격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달리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현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나 도네츠크 지역 출신 선수 역시 러시아 선수여야 한다”며 “이는 올림픽 현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올림픽 세계에서 정치적 권에서 말하는 ‘두 국가 해법’처럼 지난 30년 동안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팔레스타인 올림픽위원회가 공존해 왔다”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상황은 비극적이고 위중하지만 두 팀 모두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스포츠는 평화와 화해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럽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금지 확산

미성년자에 노출 심각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사진)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니코틴이 함유된 일회용 전자담배 출시를 금지하는 벨기에 정부 규정을 승인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라티브가 전했다.

벨기에 앞서는 2022년 말 발표한 이른바 ‘담배 없는 세대’ 명칭의 중장기 금연 전략에 따라 2028년 1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집행위 승인은 EU 회원국 개별적으로 담배 제품과 관련한 시장 개입 조치를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절차로, 판매 금지가 확정됐다는 의미다.

프랑스도 오는 21일 상원에서 열리는 합동위원회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입법이 확정되면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로 프랑스는 EU 집행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밖에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도 유사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유럽 각국이 ‘퍼프’라고도 불리는 일회용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잇달아 퇴출하려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폴란드 보건부에 따르면 2022년 폴란드 내 13-15세 기준 여성은 약 23.4%, 남성은 21.2%가량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상당수는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가 불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된 일회용 전자담배는 한 번에 최대 800회 가량 흡입할 수 있다. 종류도 과일 향부터 커피, 초콜릿 향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로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도 일부 있다.

그러나 흡입 시기 내 액상이 가열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에, 니코틴 함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열 시 발생하는 화학물에 의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또 집단 납치...주민 100여명 피랍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또다시 집단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무장세력이 북부 카두나주의 마을 2곳을 잇달아 침입해 주민 100여명을 잡아갔다.

지난 17일에는 타두나주 카주루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87명이 끌려갔고 16일에는 카주루에서 10km 떨어진 도곤노마 지역에서 16명이 납치됐다. 이날 들어서만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발어진 6차례의 대규모 납치 사건으로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반디트’로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의 몸값을 노린 민간인 공격이나 납치가 빈번하다.

지난 12일 카주루 지역 부다 마을에서 무장세력이 여성 32명과 남성 29명 등 주민 61명을 납치했고, 지난 9일에는 소코투주 바쿠소 마을 학교 기숙사에 무장세력이 침입해 어린이 15명을 끌고 갔다. 지난 7일 카두나주 쿠리가 마을 공립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명을 납치한 무장세력은 최근 이들의 몸값으로 10억 나이라(약 8억2천만 원)를 요구했다.

이달 초에는 서북부 보르노주에서 여성과 어린이 200여명이 납치됐다. 피해자는 몸값을 지불한 뒤 대부분 풀려나지만 몸값을 내지 못해 계속 잡혀 있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에는 서부 교육을 반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동북부 치복 마을에서 200명 넘는 여학생을 납치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브라질의 한 할머니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뱃속에서 50여년 전 죽은 태아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매체에 따르면 마투그로수두수우에 사는 올해 81세 할머니는 지난 14일 요로감염 증상과 복통으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이 할머니의 뱃속에서 석회처럼 된 태아(석태아)를 확인했다고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적출 수술을 받은 할머니는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했다.

지역 보건당국은 사망한 환자가 평소 요로감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석태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전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보건당국은 말했다. 적출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 측은 ‘마

지막 임신이 50년 전’이라는 환자 생전 언급과 석태아 상태 등을 토대로 아이가 50여년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극히 일부 임신 부에게 발생하는 드문 사례”라며 “(석태아는)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시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도 지난해 81세 할머니 뱃속에서 40년 전 유산된 석태아가 발견된 바 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Peta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점 |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